‘노는 언니’ 어떻게 성공했나 봤더니…‘여성 PD’ 파워?

국내 첫 여성 예능→남성 예능 제작
‘노는 브로’ 다음달 5일 정규 편성

‘여성 예능’으로 시작해 ‘남성 예능’ 버전(스핀오프)이 탄생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박세리를 필두로 한 티캐스트 E채널의 ‘노는 언니’가 케이블 채널로는 이례적으로 화제가 된 가운데, 후속 프로그램인 ‘노는 브로’가 5월 5일 정규 편성을 앞두고 있다.

이전에 남성만 출연하는 ‘남성 예능’으로 성공한 후, 여성 버전으로 제작된 사례는 많았다. ‘무한도전-무한걸스’, ‘1박2일-청춘불패’, ‘라디오스타-비디오스타’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여성 예능이 제작돼 ‘중박’의 성과라도 올리는 사례는 남성 예능으로 시작해 여성 버전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의 여성 예능 프로그램은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예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SBS는 지난 2월 설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골 때리는 그녀들’을 5월 정규 편성할 예정이다. MBC는 웹예능 ‘마녀들’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2를 6월부터 방송한다.

그동안 방송계는 여성 예능을 활발히 제작하지 않은 이유 혹은 여성 예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여성 예능인의 기근, 여성 예능인의 능력 부족, 여성 예능의 부진한 시청률 등을 이유로 꼽았다.

메인 MC급 능력을 갖춘 여성(예능인)의 등장

가장 큰 이유로는 메인 MC를 맡을 역량을 갖춘 여성 예능인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 김숙, 전 골프선수 박세리 등이 메인 MC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방송사와 제작진은 여성 예능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에서 갑작스런 전현무의 하차로 생긴 메인 MC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면서 메인 MC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이후 ‘구해줘! 홈즈’를 비롯해 다수의 파일럿(임시 편성) 프로그램을 정규편성하는데 일조하며 그 능력을 다시 입증했다.

‘노는 언니’의 흥행에는 박세리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2019년부터 ‘아는형님’, ‘수미네 반찬’, ‘밥블레스유 2’ 등을 통해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치기 시작한 그는 ‘나 혼자 산다’(2020.5) 출연을 통해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넘치는 입담과 솔직함, 특유의 카리스마로 ‘노는 언니’를 지난해 8월부터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딱히 ‘여성 예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 예능)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여성 예능인 중 메인 롤(메인 MC)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박2일’과 ‘무한도전’을 예로 들면, 강호동과 유재석이 있어 (흥행이) 가능했다. (여성 예능의 흥행은) 박나래, 박세리 등 리더십을 갖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여성들이 방송가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메인급 MC 없이) 비슷한 캐릭터의 여성 4~5명만 출연시켰다면 잘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방송가 풍속…더 과감해진 여성 예능인들

최근 방송계에서는 높아진 연예인의 위상과 방송사 자체 자정 노력에 따라 출연진을 좀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남성 예능 위주의 환경에서 웃음을 유발했던 ‘슬랩스틱’(신체적 개그를 통해 웃음을 끌어내는 코미디 장르)이 많이 감소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망가지는 코미디나 맥락없는 웃음을 뽑아내는 남자 출연자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방송국에서도 (속된 말로) 남자 출연자를 막 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의 끼를 적극 발산하는 여성 예능인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슬랩스틱’ 개그는 늘어났고, 여성 출연자들이 민낯(생얼)을 공개하는 일은 다반사가 됐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내숭없고 솔직한 모습을 방송에서 보이고 있다.

MBC ‘라디오스타’ 역사상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MC 자리를 꿰찬 안영미는 ‘19금’ 몸개그를 서슴없이 선보인다. 김숙, 박나래, 장도연 역시 자신이 망가지는 데 거리낌이 없다. 배우 송지효와 전소민은 ‘런닝맨’에서 넘어지는 ‘몸개그’를 뽐내며 톡톡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

‘노는 언니’에 이어 ‘노는 브로’의 연출을 맡은 방현영 CP(책임프로듀서·총연출자)는 “예능이라는 건 본인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면서도 이것이 호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전에는 힘 세고 약간 억척스럽기도 한 여성 예능인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들’ 덕분에 (변화를 보여줬고 ‘노는 언니’는) 살아남았다”고 ‘노는 언니’의 성공 배경을 방송 속 달라진 여성들의 모습에서 찾았다.

여성 PD의 수 증가도 한몫…’롱런’ 위해선?

굳이 성별 구분 불필요

사실 과거 남성 PD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환경에서는 ‘여성 예능’은 고사하고 ‘여성 예능인’의 기용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CP급의 여성 PD가 생겨났고, 이는 ‘여성 예능’의 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최근 ‘여성 예능’의 인기는 이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방 PD는 “제가 여성 PD다 보니 여성 예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다. 하지만 제가 연차가 낮을 때는 고연차 여자 선배들이 많이 없었다. 이제 제 또래 PD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자기 콘텐츠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여성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있어 그게 토양이 됐다. ‘노는 언니’가 갑자기 떡하니 나올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었다. 기존 여성 예능이 크게 흥행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콘텐츠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여성 예능’ 제작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는 언니’의 흥행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방송계 관계자는 “여자 예능을 하고 싶어할 때는 잘 안 됐었다. 할 때마다 안 됐다. (이후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나 혼자 산다’도 여성 출연자가 사실상 메인이다. 그래서 ‘여은파’ 같은 스핀오프도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남성 예능’과 ‘여성 예능’으로 구분하기보단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이상 방송가에서 남성 예능(인)과 여성 예능(인)을 따로 나누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캐릭터의 문제”라고 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딱히 여자 꺼(예능)을 해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성 메인 롤이 많이 생겼다”며 “딱히 여성, 남성 예능을 나누지 않는다. 재미와 기획의도, 완성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래원·이종석·차은우 영화 ‘데시벨’ 촬영 돌입

김래원과 이종석 등이 주연하는 도심 테러 액션 영화 ‘데시벨’(가제)이 촬영을 시작했다고 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이 28일 밝혔다.

‘데시벨’은 소리에 반응하는 특수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테러범과 그의 타깃이 된 해군 부함장 출신의 한 남자가 반나절 동안 벌이는 대치를 담는다.

김래원이 도심에 설치된 소리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군 중령 역을, 이종석이 잠수함에서 동고동락한 해군 대위 역을 맡아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간다.

정상훈이 ‘밀덕’ 열혈 기자 역으로,박병은이 군사 안보지원 사령부 부장 역으로, 이상희가 부함장의 아내이자 폭탄 해체반 상사 역으로, 조달환이 해군 상사 역으로 함께한다.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 ‘여신강림’ 등에서 주연을 맡은 차은우가 젊고 소신 있는 해군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오싹한 연애’, ‘몬스터’의 황인호 감독이 연출한다.

장윤정·안정환·홍현희·김동현 ‘랜선장터’, 정규 편성 6월 방송

우수한 농·수산물 소개하고 판매 도와주는 ‘착한’ 예능 프로그램

‘보는 날이 장날-랜선장터’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오는 6월부터 방송된다.

KBS는 장윤정, 안정환, 홍현희, 김동현을 MC로 발탁해 ‘랜선장터’를 파일럿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랜선장터’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라이브커머스로 소비자와 연결해 판매를 도와주는 ‘착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활기를 잃은 농촌 지역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란 찬사를 받았다.

‘랜선장터’ 손자연 PD는 “조금이라도 농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취지를 알아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뿌듯하다”며 “시즌1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과 신선한 웃음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랜선장터’ 시즌1은 두 지역 간 자존심을 건 대표 특산물 판매 대결로 진행된다.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다 함께 지켜보며 각 팀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장도연 ‘체인지 데이즈’, 양세찬 MC 합류

다음달 18일 카카오TV서 첫방송

코미디언 양세찬이 신개념 커플 리얼리티 ‘체인지 데이즈’에 MC로 합류한다.

‘체인지 데이즈’는 오는 5월 18일 오후 5시 카카오TV에서 첫방송한다.

양세찬은 마지막 순간 각 커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최종 결정을 심도 있게 추리하는 ‘연애 추적자’로 활약할 전망이다.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센스 있고 재치 넘치는 입담을 선보여 온 만큼 ‘체인지 데이즈’에서도 특유의 찐연애 감성에 유쾌한 분위기까지 더할 계획이다.

함께 MC로 활약할 장도연과의 썸과 쌈을 넘나드는 아리송한 케미도 재미 포인트다. 두 사람은 출연 커플들의 초 리얼한 연애 고민을 먼발치에서 관찰하는 가운데, 연애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철학을 담은 발칙 당돌한 토크 공방전도 이어갈 계획이다.

양세찬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커플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동안의 연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출연자들의 속마음을 탐구해 볼 계획”이라며 MC로 합류하는 각오를 다졌다.

정인선, ‘골목식당’ 하차…다음달 5일 마지막 방송

배우 정인선이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하차한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은 28일 “정인선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5월5일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밝혔다.

정인선은 지난 2019년 4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조보아의 후임으로 합류해 백종원, 김성주와 2년여간 호흡을 맞춰왔다.

그는 본업인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은 미정이며,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선은 지난 1996년 드라마 ‘당신’에서 아역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카이스트’, ‘위기의 남자’, ‘마녀보감’, ‘맨몸의 소방관’, ‘으라차차 와이키키’, ‘내 뒤에 테리우스’,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아직 낫서른’ 등과 영화 ‘한공주’, ‘경주’ 등에 출연했다.

윤시윤·안희연·박기웅, 웨이브 오리지널 ‘유 레이즈 미 업’ 출연

올 여름 웨이브에 단독 공개

배우 윤시윤, 안희연(하니), 박기웅이 웨이브(wavve) 오리지널 드라마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에 출연한다.

‘유 레이즈 미 업’은 고개 숙인 30대 ‘용식’이 첫사랑 ‘루다’를 비뇨기과 주치의로 재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섹시 발랄 코미디 드라마다. 웨이브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단독 공개 작품에 윤시윤, 안희연, 박기웅이 출연을 확정했다.

윤시윤은 31세 공시생 ‘도용식’ 역을 맡는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다 뱃살만 두둑하게 남은 것도 모자라, 비뇨기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그만 첫사랑을 주치의로 만나 좌절한다. 고개 숙인 굴욕의 나날을 뒤로 하고, 그가 무너진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다.

안희연은 비뇨기과 의사 ‘이루다’를 연기한다. 외모도, 집안도 빵빵한 유능한 의사인 그녀에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남친이다. 그의 콧대를 꺾기 위해 아주 잘난 첫사랑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만 자신의 병원에서 역변한 첫사랑과 재회한다.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미션에 돌입한다.

웨이브 오리지널 ‘꼰대 인턴’ 이후 1년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박기웅은 이루다의 문제적 남친이자 그녀와 같은 건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도지혁’으로 분한다. 타고난 금수저에, 본인 명의 개업의에, 흠잡을 데 없는 비주얼까지, 말 그대로 ‘다 갖춘’ 남자다.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묘한 도취감으로 여친을 늘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졌다.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S 측은 “통통 튀는 섹시한 스토리 안에 사랑과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청춘들의 섹시 발랄한 성장기를 담을 예정이다. 올 여름 웨이브에 단독 공개될 ‘유 레이즈 미 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